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요

정책을 만드는 대통령의 비유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요

정책을 만드는 대통령의 비유

| 머리글 |

‘손톱 밑 가시’, ‘볍은 목욕탕’, ‘불어 터지고 맛없는 국수를 누가 먹겠는가’, ‘누에가 고치를 어렵게 뚫고 나가야 날 수 있는 힘이 생기듯이…’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은 은유와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에 비해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고, 발언의 의도를 명확하게 부각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곤 한다.

‘인지언어학’의 대가로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저자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는 이러한 은유의 힘을 학문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은유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인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적 기제이자,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영향력’ 그 자체이다.”라면서 은유의 놀라운 힘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자성어를 새롭게 제시하기도 한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창가문답(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는 문화융성에 답이 있다)’처럼 짧고 간결한 말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문현답’은 공무원들의 회의석상에서 많이 인용되고, ‘창가문답’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전배사로 이용된다고 한다. 짧고 간결한 말이지만 공무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니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유와 신조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대중적 언어로 사물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선조의 지혜’를 활용한 것이라고 말한다.



‘밤에 손톱을 깎으면 집에 도둑이 든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같이 불이 밝지도 않고 호롱불 밑에서 손톱을 깎다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깎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손톱을 깎으면 도둑이 든다’고 말하니 얼마나 마음속에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게 한국식인 것 같아요. 옛날 선조들은 은유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그러나 메시지는 강력하게 전달한 거죠.

–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단 및 관계자 오찬’ 석상에서



듣는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와 하고픈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진심’의 결과가 비유와 신조어 사용의 이유인 것이다.

이 책에는 이러한 대통령의 ‘배려’와 ‘진심’이 가득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비유’와 ‘신조어’가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되었는지 아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 자료집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정책이 더욱 쉽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례

경제혁신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촛불을 켜라	08
2. 경제재도약 –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큰 호랑이도 작은 토끼를 잡지 못한다	10
3. 구조개혁 – 혁신은 기죽을 벗긴다는 뜻으로, 혁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들고 아픈 것	12
4. 노동개혁 –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	16
5. 금융개혁 – 금융이야말로 사람 몸으로 말하면 혈관과 같은 것인데, 우리 혈관이 막히고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

창조경제

6. 창조경제 – 석기시대가 지나고 청동기시대가 열린 것은 돌이 없어져서가 아니다	20
7. 창조경제혁신센터 – 멘토가 가난을 구한다	22
8. 창업 봄 조성 –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24
9. 신산업 육성 – 이랑이 고랑 되고 고랑이 이랑 된다	28
10. ICT 강국 –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32

일자리 창출

11. 규제개혁 – 손톱 밑 가시 –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34
–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요	35
12. FTA 경제영토 확장 – 코이리는 물고기는 어항에서는 10센티미터도 못 자라지만, 강물에서는 1미터가 넘는 대어로 성장	38
13. 경제활성화 입법 – 불어터진 국수, 누가 먹겠어요?	40

14. 경제민주화 –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42
-----------------------------------	----

문화융성

15. 문화융성 – 문화가 들어가면 죽어 가는 것도 살아난다	44
16. 문화의 산업화 – 이 풀은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내기 전까지는 잡초였다	48
17. 관광진흥 – 신뢰를 잃는 것은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	50

맞춤형 복지

18. 맞춤형 복지 – 딱 맞는 신발	52
19. 복지전달체계 – 구슬이 서 말이라도 끼어야 보배	54

국민행복

20. 자유학기제 –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먼 바다를 꿈꾸게 하라	56
21. 올바른 역사교육 – 영토가 육신이라면 역사는 국민의 혼이다	60
22. 기부문화 – 밥을 지으면서 쌀 한 줌은 향아리에 넣어 놓는 거예요	62
23. 공동체 가치 확산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64
24. 국민안전 – 제때에 끼매는 한 바늘이 아홉 바늘을 던다	66



비정상의 정상화

25. 국가혁신 – 거문고의 낡은 줄은 새 줄로 바꿔야 소리가 제대로 난다	68
26. 부패 척결 – 고구마 줄기처럼 뿌리는 흑 뽕아버려야	70
27. 적폐 해소 –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나는 위기는 묵은 오물을 청소할 기회다	72
28. 법질서 확립 – 법은 목욕탕이다	74

공직혁신

29. 공직 윤리 – 아흔아홉 길 우물을 고생해서 파더라도 나머지 한 길을 파지 못하면 그 우물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76
30. 공직기강 – 공직을 가진 사람은 맨 나중에 웃는다	78
31. 정부조직혁신 – 건물도 천장만 아름답고 문짝만 아름다워서 좋은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82

정부3.0

32. 칸막이 허물기 – 발가락에 티가 하나 박혀도 몸 전체가 아프다	84
33. 서비스 정부 – 야기를 낳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	86
34. 현장중심 – 우문현답 =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담이 있다	88

통일기반

35. 동북아 평화협력 – 십리를 갈 때는 신발끈을 매고, 백리를 갈 때는 가방을 챙기고, 천리를 갈 때는 같이 갈 친구를 챙긴다	90
36. 국제적 위상 강화 – 대한민국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92
37. 튼튼한 안보 –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94
38. 남북관계 재정립 –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98
39. 통일준비 –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100

정책홍보

40. 정책홍보 – 물 반 고기 반, 정책 반 홍보 반 스페셜 – 감초같은 비유	102
	104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촛불을 켜라”

인도 격언에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경기가 회복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경제의 재도약을 주도하겠다는 각별한 의지와 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디 총리님이 주도하는 모디노믹스와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견인하는 새로운 구심점이 되기를 기원하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주인

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한·인도 CEO포럼(2015. 5. 19)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그 밖의 비유들

“3개년 계획은 1년 농사의 씨를 뿌리는 것”

오늘부터 각 부처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1년 농사 짓는 데 씨를 잘 뿌리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씨를 잘못 뿌려 놓으면 애를 써도 안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서 경제 재도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2014. 2. 5)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변화의 시기를 맞아 우리가 다시 한 번 경제 대도약을 이뤄 내기 위해서는 창의적 발상과 과감한 혁신, 그리고 용기 있는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말처럼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에 용기를 내고 나서야 합니다. 저는 그런 용기와 저력이 꺾이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울 것입니다.

–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2015. 7. 7)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선언.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끊고 창조경제와 내수 확대 등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어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

G20 성장전략 중 최고

- IMF·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2014)받았고, 2015년 이행 평가에서도 전체 회원국 중 2위로 인정됨. 또한 2015년 12월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 중국·일본을 제치고 역대 최고 수준인 Aa2로 상향조정

- 블룸버그는 국가별 혁신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

-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통일시대 준비라는 기조 아래 59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큰 호랑이도 작은 토끼를 잡지 못한다”

각 부처는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최대한 담기를 바랍니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이라는 사실,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지 못한 이유는 원인과 해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 실행과제들을 꼼꼼하게 쟁여서 실천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작은 토끼 하나를 잡는 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큰 호랑이가 작은 토끼를 잡지 못합니다.

– 제2차 수석비서관회의(2014. 2. 10)



경제재도약 관련 그 밖의 비유들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고난이라는 포장에 싸여 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국가,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재도약을 이루어 내겠다는 각오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고난이라는 포장에 싸여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포기하고픈 순간을 넘기면 성장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tipping poin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뭐가 발전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을 넘기면 변화가 보이는.

– 경제관계장관회의(2015. 12. 16)

“빗물이 떨어져서 어디로 스며들 듯이 어디에 썼는지 모를 정도가 되면 안된다”

내년에 재정을 확대해야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부담되지만, 그렇다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재정을 확대해서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마중물, 또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빗물이 떨어져서 어디로 스며들 듯이 어디에 썼는지 모를 정도가 되면 안됩니다. 그걸 기화로 민간쪽이 살아나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 경제부처 정책점검회의(2014. 1. 6)

경제재도약은…

박근혜정부는 내수·수출 균형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모색. FTA의 전략적 활용과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 회복과 대·중소기업 상생, 공공개혁 가속화,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장을 통해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재정의 조기집행 등으로 경제활력의 불씨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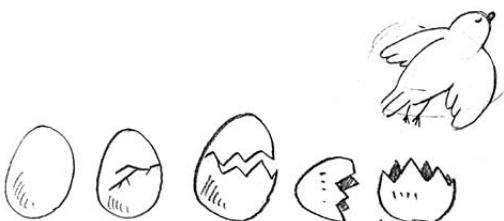
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 확장

- 확장적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 중앙·지방 재정 조기집행 확대 (2015년 117조원 → 2016년 125조원)
- 국유지 위탁개발 활성화 (1.2조원 규모 개발 추진)
- 소비여건 개선을 통한 내수활력 유지
-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완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보완 및 정규직 전환 촉진
- 신시장·유망품목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 단지를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4조원대 중국 시장 진출 프로그램 마련
-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확대

“혁신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으로, 혁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들고 아픈 것”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혁신을 가장 잘 하는 나라로 작년에 1등으로 꼽혔는데요, 올해도 1등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혁신을 한다고 하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 들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죽을 벗길 정도로 힘이 들고 아픈 건데, 우리가 규제개혁을 하고, 혁신을 한다고 하면 뚫고 나가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한국은 그런 면에서 앞장서고 있어요.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G20 국가에 제출했는데 OECD 국가 평가에서 1등을 했어요. 성장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잘된 것이라고 해서 1등을 했습니다.

–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오찬(2015. 11. 11)



구조개혁 관련 그 밖의 비유들

“개혁은 깜깜한 밤 등대를 보고 가는 것”

정부 각 부처는 이 개혁을 왜 하는지, 그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안다’ 이것이 아니라 ‘이 개혁을 왜 하지?’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밤길에 등대를 보고 가듯이 자꾸 머리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 제31회 국무회의(2015. 7. 21)

“개혁은 누에가 어렵게 고치를 뚫고 날아가는 것”

내년 초부터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가는 데 그게 너무 쉬우면 날지를 못한대요. 어렵게 뚫고 나가면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거치면서 힘이 생겨가지고 훨훨 날 수 있다는 자신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2015. 12. 23)

구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 개혁 방안을 제시.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5년 24 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해 정책역량 집중.

구조개혁 모범국 평가

- 국가별 성장전략 이행상태 평가 결과 7개 분야 22개 종 점과제 중 18개는 이행 완료, 4개는 추진 중으로, 종 점과제 이행률은 82%로 G20 국가 중 2위를 기록 (G20 평균 이행률 49%)하며 구조개혁 글로벌 모범국 가로 평가받음

- 급격한 재정악화에 시달리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 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해 부채를 감축하고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보이지 않는 것만큼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

개혁은 어떤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동참하고 지지하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풍 쳐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만큼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 그게 기가 쌓인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개혁해야 되고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뤄야 돼, 하는 마음이 계속 쌓이는 것처럼 나중에 무섭게 보이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 대한민국 ROTC 대표단과의 대화(2015. 8. 7)

“기가 충만하게 쌓이게 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옛날 선사 말씀도 ‘사람의 마음이 모이는 곳에 기가 쌓이고, 그 기가 충만하게 쌓이게 되면 현실이 된다.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애국심이 충만하고 리더십이 있고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 힘이 되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가야 한다, 그런 동참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력이 생김으로써 경제활성화도 이루고 4대 개혁도 이루고, 그 힘으로 통일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ROTC 대표단과의 대화(2015. 8. 7)

“지금 아니면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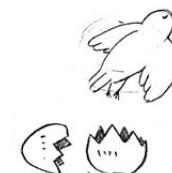
오늘 보고한 내용들을 어떤 한 부처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를 안 하려 해도 안 할 도리가 없는데, 모든 관계부처가 함께 잘 협의해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노래도 있죠? ‘Now or Never’인가? ‘사랑이 지금 아니면 안된다.’ 그래 갖고 목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Now or Never’입니다. 반드시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 국가혁신 업무보고(2015. 1. 21)

“선진국 문턱의 깔딱고개”

지금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합니다. 흔히 등산을 다니시면 깔딱고개라고, 정상을 앞두고 마지막을 넘어가기 위해서 정말 숨이 찬 고개를 깔딱고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개를 넘어가면 우리가 선진경제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꿈이 눈앞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발표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밀그림은 우리의 이런 꿈을 앞당겨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2015. 12. 18)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이런 여러 가지 중차대한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위했고, 어떻게 계을리했는지…,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2015. 12. 23)



노동개혁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죽음의 언덕을 혼신의 힘을 다해 넘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막바지 죽음의 언덕으로 불리는 몬주의 언덕을 혼신의 힘을 다해 넘어서 금메달을 따내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당초 약속한 활동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마라톤협상을 이어 왔습니다. 아직 대타협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데,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인식을 함께하고 대타협에 대한 희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제5차 수석비서관회의(2015. 4. 6)

“처음에는 티끌만한 차이였으나 나중에는 천리의 차이”

‘처음에는 티끌만한 차이였으나 나중에는 천리의 차이가 난다’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결정하고 실천하는 작은 것 하나라도 앞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신뢰 기반이 구축되고 현안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84차 본위원회(2013. 9. 27)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기반 확충을 목표로 넓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여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고, 노동시장 이종구조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대로 노동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 전개. 개혁추진의 제도 마련을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입법과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지침 추진.

37만개 일자리 창출

- 2015년 9월 15일 노동개혁의 토대가 될 8대 분야 65개 과제에 대한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 도출. 이는 노사의 결단으로 17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협의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든 큰 성과

- 노동개혁 법안으로 청년 일자리 증가, 비정규직 축소 · 격차 해소 등 기대

37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

70만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286만 근로자와 가족의 저녁이 있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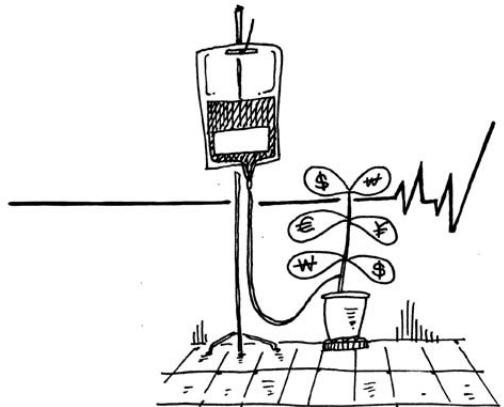
연간 128만명 실업급여 추가혜택

5년간 26만명의 출퇴근제해 보상

“금융이야말로 사람 몸으로 말하면 혈관과 같은 것인데, 우리 혈관이 막히고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이 실물경제의 혈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차질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알리기를 바랍니다. 금융이야말로 사람 몸으로 말하면 혈관과 같은 것인데, 우리 혈관이 막히고 이 혈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 우리 경제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개혁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제31회 국무회의(2015. 7. 21)



금융개혁 관련 그 밖의 비유들

“낡은 피는 내보내고 새 피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창조경제로 바꾼다고 했으면 실물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금융도 옛날하고는 다른 마인드와 기법으로 해야 되는데, 창조경제로 간다 하고 금융은 그대로 옛날식으로 가서 손발이 안 맞아서 안되거든요. 이게 낡은 피다 이거죠, 새 피가 들어와야 우리 경제를 돋는데. 여태까지는 금융이 담보 위주로 경제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앞으로는 창조경제시대에 맞게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금융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촉장 수여식 및 제7차 회의(2015. 10. 7)

“뭐 무서워 장 못 담글까”

ICT와 금융의 융합과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지금 ICT 기업들이 금융기관하고 제휴하거나 금융기관 영역에 진출해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이런 흐름에 뒤쳐져서는 안됩니다. 금융위원장께서 IC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고 금융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위험요소가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훨씬 크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고, 허점은 열심히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2014. 8. 26)

금융개혁은…

금융계가 직면한 위기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5년 3월 금융개혁 방향을 발표. 금융개혁이란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의 판을 흔들어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로 설정.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 탄생

-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책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보험상품 비교포털 출시, 간편결제서비스(26종), 간편송금(8종) 등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운영

-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2015년 말까지 총 32조여원의 기업대출이 이전보다 1.08%p 낮은 금리로 제공돼 창업·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획기적으로 해소

“석기시대가 지나고 청동기시대가 열린 것은 돌이 없어져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석기시대가 지나고 나서 청동기시대가 열렸는데,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청동기시대, 그 당시 어떤 새롭고 획기적인 과학 기술이 나와서 청동기시대를 열었고, 그것이 더 좋으니까 석기시대는 돌이 널려 있는 데도 없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화석원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이지만 또 어떤 새로운 기술, 과학기술로 그것을 극복하면 새로운 에너지시대를 열 수 있다는 비전을 확실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제21차 수석비서관회의(2013. 10. 31)



창조경제 관련 그 밖의 비유들

“공룡은 힘이 약해서, 몸집이 작아서 멸종된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된 것”

옛날에 커다란 공룡이 힘이 약해서, 몸집이 작아서 멸종된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멸종이 됐습니다. 현대에도 보면 아주 잘나가던 기업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데 이 시대에 맞는, 지금의 기술발전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실천해야 그것이 제대로 들어맞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2014. 8. 26)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장,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신개념의 한국형 경제도약 모델.

성공적 생태계 조성



창업기업 보육
578개사



중소기업 혁신지원
541개사



투자유치
1,267억원



신규채용
283명



멘토링·컨설팅
11,738건



시제품 제작
4,060건

- ‘현 정부가 가장 질한 정책’ 1위
(중소기업중앙회, 2015.9)

- ‘창조경제정책 지속 필요’ 66%
(한국정책학회, 2015.10)

“디자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

옛날에는 가격으로 제품경쟁을 했고, 몇십 년 전에는 품질로 경쟁했는데 지금 시대에는 디자인으로 경쟁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디자인은 창조경제하고도 굉장히 맥이 닿아 있는 건데, 디자인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이 좀 더 접근성이 좋고 쓰기 좋고 안전한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 배려, 더 나아가서 친절과 사랑, 이런 것까지 연결돼서 발전해 나가려면 역시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2013. 6. 19)

“멘토가 가난을 구한다”

청년들이 자기의 꿈과 끼를 가지고 마음껏 도전해서 세계적 성공모델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성공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젊은이한테 영감과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보려다가 실패했을 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환경과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기업가 정신, 도전정신이 싹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세상은 '멘토가 가난을 구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창업이라든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멘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멘토링, 이것도 중요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2013. 3. 25)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소가 언덕이 있어서 비비는 것처럼 사소한 일도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도약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2015. 7. 24)

“씨앗이 없는데 헛볕이 비춘들, 알맞게 비가 내린들, 비료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나”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두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 이런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어야만 비료도 줄 수 있고 햇볕을 쬐어 가을에 수확할 게 있지, 씨앗이 없는데 헛볕이 비춘들, 알맞게 비가 내린들, 비료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2015. 7. 24)

“구슬이 서 말이라도 뀌어야 보배”

다 좋은 취지로 해 놓고 따로따로 있으니까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구슬 서 말 뀌듯이 하면 시너지가 나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 경제부처 정책점검회의(2014. 10. 6)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지방자치단체·대기업을 연계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모델로 2015년 3월과 4월 각각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혁신센터 모델 수출. 또한 프랑스, 온두라스, 중국, 불가리아, 뉴질랜드 등이 국내 혁신센터와 MOU 체결을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도출.

전국 17개 혁신센터 설치 완료

- 온라인 기반의 전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을 2013년 9월 설치한 데 이어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인천까지 17개 광역 시·도별로 창업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완료

- 2017년 말까지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기업 2,500개, 기존 중소기업 지원 2,500개 등 약 5,000개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성장지원을 통한 다양한 성과 기대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수많은 사람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누구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 내지 못했는데, 뉴턴은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해서 사과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위대한 법칙을 발견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부터 우리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면서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겨 낼 수가 없습니다.

–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 9. 23)



창업 븐 조성 관련 그 밖의 비유들

“한국 사람에게는 기마민족같이 돌아다니고 개척하는 것을 좋아하는 DNA가 있어”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5천만 인구로 사실 적잖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기술만 있으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두렵기도 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좋은 기술이 있어도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성이 기마민족같이 항상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진 외국의 도시를 가서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있겠어!’ 하고 생각하면 거기에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에겐 돌아다니고 개척하는 것을 좋아하는 DNA가 있나 봅니다.

–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2014. 9. 4)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평계를 찾는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평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모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은 분들이고 여러분의 그런 경험이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모델이자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학벌보다는 창의성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 청년위원회 제1차 회의(2013. 7. 16)

창업 븐 조성은…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5) 등 10여 차례 벤처창업대책을 마련. 벤처창업 생태계 내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던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사상 최대의 ‘벤처창업 븐’ 조성.

창업1년만에 120억원 매출 올린 벤처탄생

- K뷰티 커머스 기업인 ‘비트링크(2014.7)’는 창업 1년만인 2015년 120억원의 매출 달성
- 웹 기반 영상 자동제작 시스템을 제작하는 ‘비디오팩토리(2014.2월 창업)’는 2015년 7월 해외투자 4억 5천만원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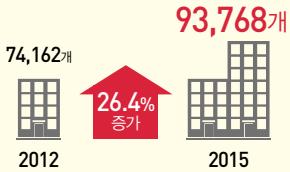
● ‘테그웨이(2014.9월 창업)’의 ‘체온을 이용한 전기 발생기술’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2015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에서 그랑프리(1등) 수상

●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DOT(2014.1월 창업)’은 ‘2015 ITU 텔레콤 월드’에서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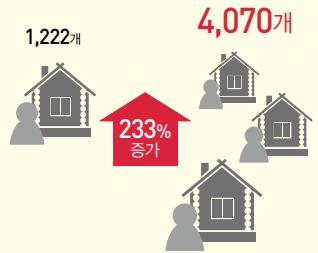
● 원단디자인 설계프로그램 업체인 (주)월넛(2014.1월 설립)은 국내 시장점유율 70% 확보, 전년 대비 40배 매출 신장

벤처 투자 규모 역사상 최고 기록

신설법인 수



대학 창업동아리 수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판다”

FTA가 체결되고 하면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참석자 : 유럽에도 밥솥을 많이….) 유럽에서도 밥을 지어 먹나요? (압력으로 하는 요리들이 있습니다. 압력 조리용으로 파는데, 스페인에도 팔고 러시아에도 팔고 점차 확대해 나갈 겁니다.) 장사 잘하는 사람은 에스키모인들한테도 냉장고를 판다는 거 아니에요. 하기 나름입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출범식(2014. 7. 22)

“한 번도 실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은 ‘한 번도 실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 미래과학인재와의 대화(2014. 12. 26)

“우리 뇌에 고속도로를 만들자”

꼬불꼬불하고 좁은 길로 나가서 무엇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고속도로는 빨리 갈 수 있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머리에서 다 아이디어가 나오고 추진력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에 열정이 없으면 자연히 생각을 많이 안하게 돼죠.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우리 뇌에 그렇게 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 9. 23)

“집에 와서 매화꽃을 보고 여기 봄이 있다고 알았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건데 이렇게 큰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의 창의성과 열정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이런 시가 있죠? ‘봄이 어디 있는가 하고 산으로 들로 한참 찾아다녔는데 봄을 못 찾다가 집에 와서 뜰에 피어 있는 매화꽃을 보고 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다.’ 창조경제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 속에서 아주 큰 사업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뻗을 수 있는 씨앗이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아이디어 창업기업 현장방문 및 청년 CEO와 함께하는 창고간담회

(2014. 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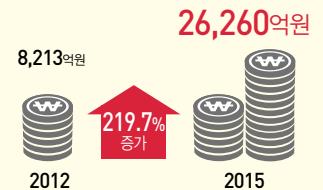
“봄바람이 불면 산꼭대기나 들에 가서

불을 빼지 않아도 꽃이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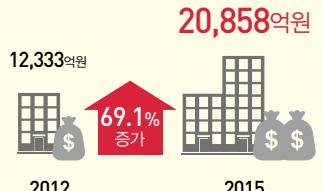
중소·중견기업의 성공 경험을 가진 탁월한 분들과 힘을 합해서 기술사업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공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봄바람이 불면 저기 산꼭대기나 들에 일일이 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거기에 불을 빼지 않아도 꽃이 학 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공사례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동기를 부여받고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길이 됩니다.

–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14. 4. 10)

펀드 조성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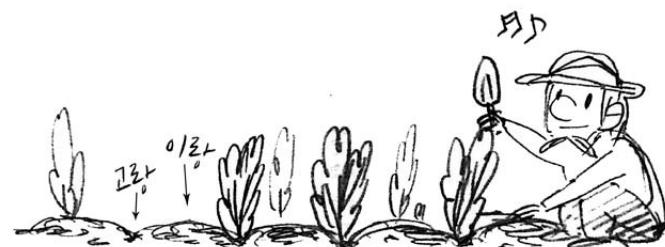
펀드 투자액



“이랑이 고랑 되고 고랑이 이랑 된다”

옛말에 ‘이랑이 고랑 되고 고랑이 이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업과 어업, 농업은 항상 보호받아야 되고 어렵게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경을 잘 생각한다면 이것이 또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오염수 유출 등으로 해서 모든 국가에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공들여서 세운 우리 수산물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위생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산부터 소비 단계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 9. 25)



신산업 육성 관련 그 밖의 비유들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든다”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무인이동체 기술에도 이 말이 딱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인이동체는 원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됐고,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는 극한지역에 침투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첨단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접목되면서 그 활용이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 제22차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2015. 5. 29)

“조용히 앉아 있으면 기적을 볼 수 없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기적을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분야에 뛰어드는 용기와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청년 엔지니어들은 혁신적 기술과 제품개발에 도전하고, 기업들은 적극적 투자로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정부는 우리 산업이 창조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LG 사이언스파크 기공식(2014. 10. 23)

신산업 육성이란…

신산업은 각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활용 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5대 신산업 집중투자

- 5대 신산업 분야에
44조원 투자계획
- 에너지신산업 :
42개 프로젝트 23.8조원
- ICT제조융합 :
32개 프로젝트 14.2조원
- 바이오헬스 :
24개 프로젝트 2.6조원
- 신소재 :
9개 프로젝트 1.8조원
- 고급소비재 등 :
6개 프로젝트 1.4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 소비재 (화장품 · 식료품 · 유아용품 · 패션의류) - 화장품학과 개설 등으로 전문 인력 양성 - 고부가 제품화 R&D 지원 (2016년 877억원) - 비관세 장벽 해소 위해 한 · 중 FTA 채널 활용 및 상호인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신소재 (탄소섬유 · 마그네슘 · 타이타늄) - 신소재 시험 인증 시설 확충 - 자동차 · 항공기 등 수요 산업과 연계한 R&D 확대 - 탄소섬유를 활용한 CNG 운반 탱크 시판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헬스 (의약 · 헬스케어 · 의료기기) - 초기 바이오 벤처전용 투자펀드 조성(2016년 300억원) - 바이오 의약 생산 전문인력 양성(2016년 100명)
--

“위대한 꿈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위대한 꿈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1960~70년 대에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이 반도체와 휴대폰, 자동차와 선박을 수출하고 세계시장을 석권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꿈이 있었기에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출입국 50년의 저력을 바탕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제2 무역입국의 위대한 도전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2013. 12. 5)

“장롱특허라는 게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다 써야지 그걸 왜 장롱에다가… .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발견해 도 그런 것이 사업화가 안되는, 이 고리가 굉장히 약해요. 고리가 튼튼해도 거기가 약하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R&D 예산을 많이 써도 거기에서 약하니까 고리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 경제부처 정책점검회의(2014. 10. 6)

“끝말잇기 게임을 하듯이”

옛날에 말을 할 적에 ‘매미’ 하면 그걸 이어서 ‘미래’ 하면 ‘네마콘’, 이런 식으로 끝말잇기를 하는 것같이, 이렇게 희한한 아이디어가 계속 속출하다 보면,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사업화됐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것이 나왔다, 이렇게 말꼬리잇기를 하듯이 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2015. 7. 24)

“개미가 절구통 물고 나간다”

좀 힘들게 생각되는 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개미가 절구통 물고 나간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 보셨죠? 그래서 힘을 합하면 개미가 절구통을 물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수산업계와 기업들이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를 얼마든지 농수산업 강국으로 키워 나갈 수 있고, K-FOOD 같은 한류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축수산단체장 오찬간담회(2015. 3. 27)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발명을 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지 또 문제가 풀리지 않는 다든가 할 때 대부분 과학기술이 들어가서 역할하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일자리까지 만드는 역할을 과학기술이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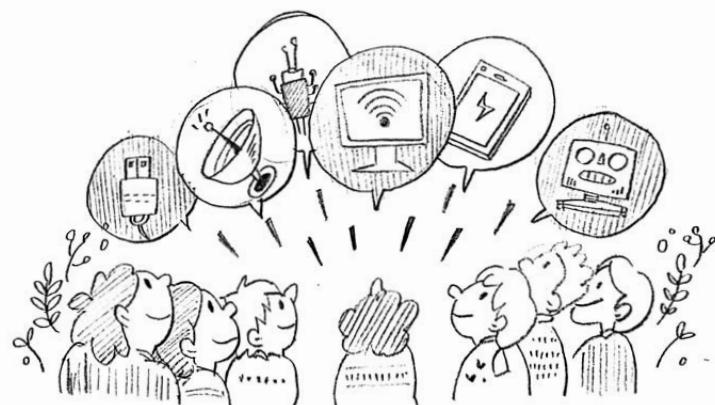
-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오찬(2013. 9. 16)

- ESS(신규 수요 창출 등 산업화)
 - 송 · 배전용 ESS 구매 확대
(2016~2017년 3,800억원)
 - 태양광 연계 ESS
인센티브 제공
 - 비상전원을 ESS로
대체 허용
 - 국가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 태양광 등(투자 확대 및 해외 진출)
 - 하천 · 수상 · 발전소 유휴지 내
입지 허용
 - 전력 공기업 투자(2016~2017년
1.5조원) 통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 의무 확대 이행
 - 소재 · 부품 R&D 대폭 확대
(2016년 1,800억원)
- 스마트그리드(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
 - 비즈니스 성공모델 및 실증경험
확보(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
지자립섬, 공동주택 등)
 - 전력 소비패턴 등 빅데이터 민
간 제공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소프트웨어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논의할 소프트웨어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반도체의 4배, 휴대폰의 5배에 달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자동차라든가 의료기기, 항공기 등 첨단제품에도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또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하는 사물인터넷을 현실화하는 힘도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2014. 7. 23)



ICT 강국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전쟁이 시작되는 곳은 마음이기 때문에
평화의 장벽을 쌓아야 하는 곳도 바로 마음이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비스산업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만져지고 잡히는 게 아니니까 공짜로 훔쳐다 써도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현장에 ‘전쟁이 시작되는 곳은 마음이기 때문에 평화의 장벽을 쌓아야 되는 곳도 바로 마음이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장벽,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가치를 인정해줄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 12. 13)

“자동차는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과 엔저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공세로 우리 주력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주력산업이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에서도 소프트파워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고 말할 정도로 제조업에서 ICT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ICT와의 융합을 통해서 제조업을 혁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I 업무보고(2015. 1. 15)

ICT 강국은…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제비전. 범정부 ICT 정책방향을 제시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초연결 창조한국’ 구현.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융합 신산업 시장 30% 이상 확대
- IoT 4.8 → 6.2조원, 클라우드 0.7 → 1.1조원, 빅데이터 2,623 → 3,410억원 (2015 → 2016년 전망)
- SW 중심으로 ICT 산업 생태계 강화
 - SW 선진국 기술격차 해소 : (2013) 73.5% → (2015) 76.8%
 - ICT 무역수지 흑자 : (2013) 886억 달러 → (2015) 962억 달러
-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 ICT 융합기술 수준 : (2013) 79.5% → (2015) 86.5%
 - ICT 융합신산업 시장 규모 : (2013) 1.5조원 → (2015) 3.9조원

“손톱 밑 가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정책과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한·중·일 FTA 협상도 꼼꼼하게 잘 챙겨 주기 바랍니다. 개방화의 파고 속에 우리 농축산업의 어려움이 큰데,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융합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구조와 농축산인들의 어려움도 손톱 밑 가시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고통을 해결해 드리기 바랍니다.

– 제11회 국무회의(2013. 3. 8)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8월 30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정부의 역할이란 손톱 밑에 가시를 뽑듯 중소기업의 제도나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손톱 밑 가시’ 표현을 처음 사용.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정부 출범 후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4차례 직접 주재하는 등 규제개혁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있음.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모든 국민이 바라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외쳐 봐도 규제혁신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하고 제가 말을 하나 지어 냈습니다.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죠? 이것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국토해양환경 분야 업무보고(2014. 2. 19)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요”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해야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냈나요.’ 이건 정말 융통성을 발휘해야죠. 또 오염에 대해서는 방지를 확실하게 하고,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어떤 혜택이나 편의를 봐줘서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꼭 좀 되도록 해 보시죠.

– 경제관계장관회의(2015. 12. 16)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냈나요’ 비유 배경

- 식품 전문기업 A사는 경기도 이천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지속되어온 엄격한 환경규제와 입지규제로 인해 부지 증설을 할 수 없어 신규 투자와 수출길이 막히게 되자, 주변 지역의 다수 공장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대통령께 건의(경제관계장관회의, 2015. 12. 16).
-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냈나요’라는 비유를 들어 글로벌시대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염방지시설 구비 등 융통성을 발휘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관련 부처들에 지시.
- 환경부는 환경규제가 경제와 함께 살도록 재설계하는 방안 추진.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한 오염사고 예방시설, 오염자동측정기기 설치 등으로 환경과 안전을 담보한 뒤 입지규제 방식을 원천 입지 불허에서 유연한 입지 허용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동북부에 소재한 기존 공장의 증설 문제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

규제개혁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 암 덩어리이다”

창조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가 혁신해서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 우리 몸을 자꾸 죽여 가는 암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 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혁신이 이루어지지 웬만한 각오 가지고는 규제가 혁파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규제를 반드시 확확 들어 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합니다.

– 제3차 수석비서관회의(2014. 3. 1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영어 표현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전체로 보면 좋은데 막상 들어가서 하나하나 따져 보면 기업한테는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주는 게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했다는 것이 좋은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것까지 깊이 소통을 통해서 기업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이것이 악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규제방법도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 9. 25)

규제개혁은…

‘돈 들이지 않는 투자’로 불리는 규제개혁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만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시행, 규제개혁 신문고·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의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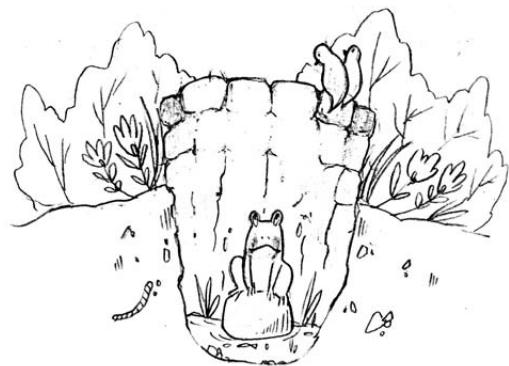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

- 규제개혁 1건당 평균 경제효과 280억원, 고용창출 효과 300명. 2015년 사상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209억 달러) 달성을 기여
- 2015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 가 부문에서 전체 4위, G20 국가 중 1위, OECD 국가 중 3위 차지
- 2016년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한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항에서는 10센티미터도 못 자라지만, 강물에서는 1미터가 넘는 대어로 성장”

‘코이(Koi)’라는 물고기는 어항에서 키우면 10센티미터도 못 자라지만, 강물에서는 1미터가 넘는 대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만들어 온 FTA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데도 힘써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해외 진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유망한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해서 글로벌 경제의 ‘대어’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 경제계 신년 인사회(2015. 1. 5)



FTA 경제영토 확장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우물 안 개구리는 제아무리 열심히 뛰어 봤자 결국 우물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제아무리 열심히 뛰어 봤자 결국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큰 시장으로 나가서 서로 경쟁하고 배워 나갈 때 더 크게 더 높이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가장 든든한 발판은 FTA입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2015. 1. 15)

“등태소천(登泰小天),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낼 또 한 번의 기적의 역사를 믿습니다. 등태소천(登泰小天)이라는 말이 있는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상으로 기업인 여러분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서고,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다 하는 기상으로 세계시장을 휘젓고 다녀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2014. 12. 18)

FTA 경제영토 확장은…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유리한 여건 마련. 박근혜정부 들어 중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과 FTA 협정 추가 체결.

사상 최초 수출 세계 6위 달성

- 총 52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FTA 시장 비중은 약 73.5%로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기록

- 활발한 정상 세일즈 외교를 기반으로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수출·무역수지 흑자 사상 최고치 경신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고, 2015년에는 사상 최초 수출 세계 6위 위업

- FTA 체결국과의 수출, 교역 규모는 전체 대비 2.5배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여 우리 무역의 성장을 주도

“불어 터진 국수, 누가 먹겠어요?”

이번 회기에는 경제,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개혁 등 정책 협안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법안들도 다 타이밍이 있어서, 밥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어 터진 국수, 식어서 맛이 없어진, 이것이 정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서 만들어도 효과를 못 보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부동산법안도 그렇고….
다 불어 터진 그런 국수를 누가 먹겠어요.

– 제7회 국무회의(2014. 2. 4)



경제활성화 입법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뵐만 높다 하더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뵐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뵐만 높다 하더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1,440여 일 동안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약 한 1,000일 전에 해결됐다면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 경제관계장관회의(2015. 12. 16)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 기업의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 제40회 국무회의(2014. 9. 16)

“필요한 것에서 시작해 가능한 것부터 하다 보면 어느새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것에서 시작해 가능한 것부터 하다 보면 어느새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비판만 하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 제53회 국무회의(2015. 12. 8)

경제활성화입법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계기마다 국회가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 2016년 대국민 담화에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서명운동’에도 직접 참여.

입법촉구 천만서명운동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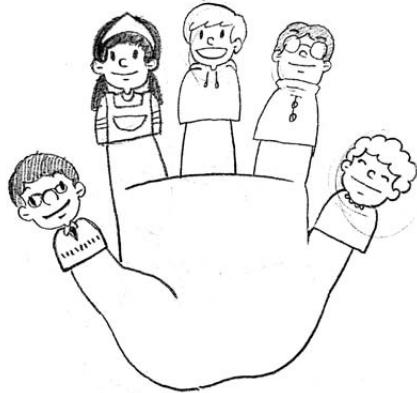
- 대통령의 대국회 설득과 호소에 힘입어 크라우드펀딩법·관공진흥법개정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서명운동’에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 촉구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어떤 한 집단을 완전히 적대시해서 여기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 열 개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나 하는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히 더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그 궁극적 목표는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돼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 언론사 정치부장단 만찬(2013. 5. 15)



경제민주화 관련 그 밖의 비유들

“병도 치료보다는 예방”

병도 나중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라고, 그게 요즘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발견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기 어려운 산업에 대해서는 세제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연결고리도 잘 발굴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14. 12. 16)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 우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 영역 침범으로부터 경제적 악자를 보호하여 동반성장 촉진. 또한 대기업 집단 지배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과 부당이익 환수, 기업집단구조 개선,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등의 기반 구축.

대기업 순환출자수 99% 이상 축소

-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99% 축소되는 등 소유지배 구조가 개선

- 중소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 경제적 악자의 권리보호를 이전보다 더 강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형사 처분을 강화함은 물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

“문화가 들어가면 죽어 가는 것도 살아난다”

광주에 한 시장이 있는데, 거의 문을 닫을 뻔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장이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스러져 갔는데, 거기에 젊은 창작자들이 들어와서 작은 전시회도 열고 밤에 또 야시장을 열어서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확 살아났대요, 완전히.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문화가 곳곳에 스며들도록 하면, 문화가 들어가면 죽어 가던 것도 살아난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문화의 시대예요. 이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도 잘 살아나서 그곳에 살면서도 이런 것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2015. 2. 24)



문화융성 관련 그 밖의 비유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지 집을 부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옛날 전통가옥을 그대로 두면서 우리 전통가옥이 갖고 있는 특징을 새롭게 잘 살려 낸다면 다른 나라에 없는 새롭고 독특한 가옥이 탄생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건 당연한 걸로 알고 무심하게 생각했는데, 뉴턴만이 그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 그런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제11차 수석비서관회의(2015. 8. 10)

“집을 부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그런 것을 깨끗하게 다듬으면서 해야 되는데 다 부순다 이거죠. 그러면 안된다, 그래서 저자도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집을 부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 집 그대로 놔두고 마음을 바꿈으로써 창조적으로 만들도록 똑같은 성냥갑 집이 아니라 더 개성적이고 한국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2015. 8. 6)

문화융성은…

역대 정부 최초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선정. 정부는 문화융성의 방향으로 전통문화유산과 보유자산의 세계화 방안, 문화융성과 청조경제의 시너지 창출 방안, 국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방안 등을 추진.

콘텐츠산업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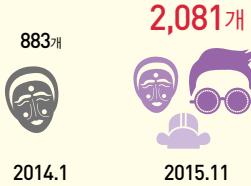
99.6조원으로 확대

- 콘텐츠펀드 확대, 문화기술 개발 지원,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2015년 콘텐츠산업 시장규모 99.6조원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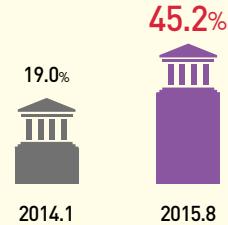
- ‘콘텐츠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통해 콘텐츠기업의 수출 상담부터 해외 마케팅, 1:1 맞춤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2013년 문화기본법,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2015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문화융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인지도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메세나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지금은 문화가 있어야 돼요. 문화가 또 경쟁력입니다. 앞으로 내각이 새로 시작하면 문화 쪽은 국가브랜드 쪽으로 해 가지고 화끈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서비스 따로 제조업 따로 창조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조업도 창조경제가 필요하고 서비스도 필요하고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 201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2014. 7.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그러니까 순천도 순천의 특징을 살리고, 청주에서 역사가 오래된 삼겹살거리 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삼겹살 집을 연 곳이 청주다, 이런 스토리가 엮어져 가지고 맛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관광 오면 청주에 가서 삼겹살을 꼭 먹고 가야 된다든지, 또 순천의 정원을 꼭 보고 가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만 있는 그 지역의 특징을 잘 살리면 그게 세계적인 것이 되지 않겠어요?

–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과의 오찬(2015. 7. 8)

- 남한산성 · 백제역사유적지구, 김장문화 · 농악 · 줄다리기, 난중일기 · 새마을운동기록물 · 한국의 유교책판 등 2013~2015년 유네스코 유산에 9건을 신규 등재(총 43건)

“군계일학”

저변이 두텁다 보니까 그런 우수한 선수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 키우겠다, 저 사람 키우겠다, 이렇게 급한 대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천 마리의 닭 가운데 한 마리의 학이라는 ‘군계일학’이라는 속담이 있죠. 저변이 두텁다 보면 거기서 우수한 인재가 나오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2015. 2. 24)

“배우고(學) 사람을 안다(知人)는 논어의 뜻이 바로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정신”

논어는 ‘학’이라는 글자로 시작해서 ‘지인’이라는 글자로 끝을 맺는데, 결국 배우고 사람을 안다는 논어에 담긴 뜻이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항상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2014. 8. 6)

“이 풀은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내기 전까지는 잡초였다”

콘텐츠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해 나가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풀은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내기 전까지는 잡초였다.’ 알아낸 순간 그것은 갑자기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잡초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뭔가를 발굴해 내서 창조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신데렐라같이 대박을 터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으면 좋을 것입니다.

– 제51회 방송의 날 축하연(2014. 9. 2)



문화의 산업화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창가문답! 창조경제의 가시화는 문화에 해답이 있다”

창조경제의 가시화는 문화에 해답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더 기억을 잘하려면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것을 줄여서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창조경제의 가시화는 문화에 해답이 있다’. 그걸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창가문답’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 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서 항상 문화를 염두에 두고 창조경제를 하더라도 항상 그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 경제혁신Ⅱ 업무보고(2016. 1. 18)

“견우와 직녀를 이어 주는 오작교처럼”

오늘처럼 장르가 다르고 분야가 달라도 이런 만남의 자리를 더욱 자주 갖고, 또 작품도 같이 만드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창작 활동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융·복합 공연예술 축제인 ‘파다프(PADAFF)’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가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견우와 직녀를 이어 주는 오작교처럼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여러분의 만남의 기회를 이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융·복합 공연 ‘One Day’ 관람(2014. 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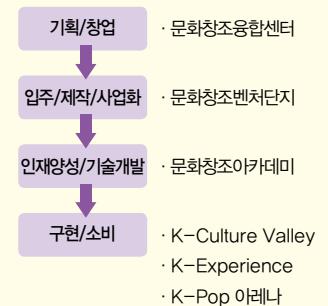
문화의 산업화란…

정부는 문화와 산업을 융합하여 ‘한국 스타일’의 고성장, 고부가가치의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복지와 한류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문화콘텐츠 생산·유통의 안정적 기반 마련.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 문화창조융합센터 및 문화창조벤처단지 개관 등 융·복합 문화콘텐츠의 선순환 환경 구축
- 문화창조융합센터 방문객 3만 3,000명(2015년), 멘티 250 여명에게 120여건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융·복합 콘텐츠 기획, 문화창조벤처단지 93개 기업 선정 완료
(평균 입주경쟁률 1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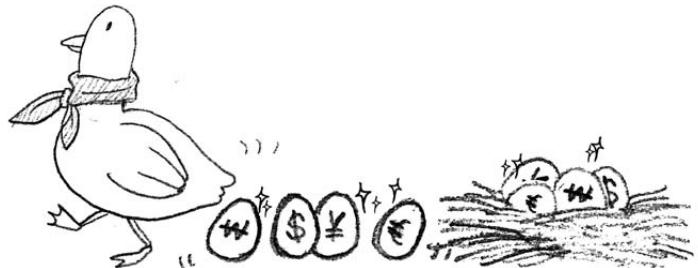
〈문화창조융합벨트 성장엔진 마련〉



“신뢰를 잃는 것은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

우리나라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바가지를 씌우거나 관광객을 속이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하게, 바가지 씌우는 일 없이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하면 감동해서 또 오고, 입소문을 타서 또 오고 해서 관광사업이 벌어질 텐데, 한순간에 돈을 더 벌겠다고 속이면 배신감 때문에 관광객을 쫓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올 사람도 더 안 오게 된다 이거죠. 성실하게 하면 관광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런 불공정한 문제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관광사업이 아니라 신뢰를 밟히는 거였어요.

–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2014. 2. 5)



관광진흥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사슴을 쫓는 자는 숲을 보지 못한다”

‘사슴을 쫓는 자는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왜 사슴을 쫓는 자는 숲을 못 보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했느냐하면 바가지요금같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관광객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인상을 주게 되면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이 그걸로 인해서 다시는 찾지를 않을 거거든요. 또 음식 먹고 잘못되면 거기 또 가고 싶겠습니까?

– 제38회 국무회의 주재(영상)(2014. 9. 2)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된다”

옛날부터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었잖아요. 길 가던 나그네도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되었잖아요.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지금도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손님 대접 잘하고 정이 넘치고 그랬던 백의민족이었는데 왜 바가지를 씌우느냐 이거죠, 창피하게.

– 제14차 수석비서관회의(2015. 10. 5)

관광진흥은…

관광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고, 관광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부가가치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관광활성화 여건 조성.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진입

-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호텔건립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외래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수입 증대 (2015년 139억 달러 → 2016년 189억 달러)
- 관광산업 고용 규모 확대 (2015년 51만명 → 2016년 59만명)
- 관광진흥법 개정과 관광숙박특별법 연장 등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2017년 까지 5,960실, 1만 7,960개 일자리 창출)
- 블랙프라이데이 및 코리아 그랜드세일 활성화로 관광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 2015년 관광주간 주요 성과
 - 국내여행 참가자 수 : 약 3,720만명 (25% 증가, 전년 대비)
 - 이동총량 : 약 7,935만명(6% 증가)
 - 총지출액 : 4조 9,224억원(19% 증가)

“딱 맞는 신발”

보육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고 다양한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육도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하나만 딱 주고 하라고 하면, 신발 큰 것 하나 딱 주고서 신으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보육도 이런 수요도 있고 저런 수요도 있고, 주거도 이런 수요도 있고 저런 수요도 있고, 그렇게 세밀하게 노력해서 이걸 어디까지나 투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2015. 2. 6)



맞춤형 복지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서로 돋고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좀 더 확산되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는 특히 우리 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께서 펼치고 계신 봉사와 나눔의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 나눔실천자 초청 오찬(2013. 8. 21)

“병아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올 때 알 밖의 어미닭도 함께 껍질을 쫓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처음 나올 때 알 속의 병아리와 바깥의 어미닭이 함께 껍질을 쫓아서 깐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활 노력 위에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정책이 힘을 더하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내 일(My Job) 행복자활박람회 개막식(2013. 7. 9)

맞춤형 복지는…

모든 국민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각종 사회보장정책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맞춤형 서비스 정책. 모든 국민이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단계별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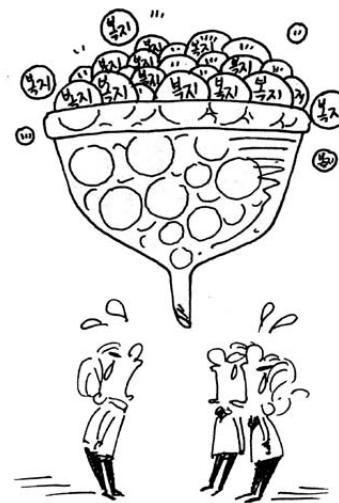
평생 사회안전망 체계 완성

- 0~5세 아동 250만명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 12세 이하 아동 600만명에 국가예방접종 14종 무료 시행
- 대학생 맞춤형 국가장학금 및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뉴스테이 공급 확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을 통한 청정년층 일자리 창출
- 노인 448만명에게 기초연금 지급, 경증치매노인 2만명에게 요양서비스 제공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성 강화로 환자 의료비 부담 6,147억원 경감

“구슬이 서 말이라도 끼어야 보배”

정부 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자체, 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들 간에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개인과 가구별 형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복지전달체계에도 들어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네트워킹을 잘해서 그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전부 구슬같이 끼어져서 실질적 도움을 효과적으로 주게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 제5회 국무회의(2015. 2. 3)



복지전달체계 관련 그 밖의 비유들

“깔때기 현상 아시죠?”

오늘 복지전달체계를 이야기하는데, ‘깔때기 현상’이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국회에 있을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복지제도가 들어오면 그게 전부 읍·면·동으로 다 내려와서 깔때기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러느라고 신발 뒤축이 상당히 자주 닳았대요. 이 깔때기 현상이라는 게 그때 그걸 계기로 사회에도 많이 알려졌어요. 또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실제로 확충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2015. 11. 11)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복지기능·조직·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등 복지 전달체계 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

-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시범 사업 실시(전국 15개소, 2014.7~2015.12)

- 읍·면·동 인적안전망(복지 이·통장 9만4천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만3천명, 좋은 이웃들 2만3천명 등)을 활용하여 공공 및 민간 복지 지원을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 지원

- 사각지대 벌금 6.2배, 서비스 연계실적 3.4배 확대, 주민만족도 향상(82→93점)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먼 바다를 꿈꾸게 하라”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꿈을 가질 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즐겨 인용하는 말이 생텍쥐페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기보다는 먼 바다를 꿈꾸게 하라.’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특히 자유학기제 시대에는 바다를 꿈꾸는, 그걸 그리워하는 학생들이 된다면 배 만드는 법은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야 되니까, 저 먼 바다로. 그런 방법으로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제2차 수석비서관회의(2013. 3. 4)



자유학기제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면 평생 일을 안 해도 된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면 평생 일을 안 해도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일이라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부담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요즘 우리가 창의교육, 또 창의성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창의성이라는 게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좋아서 몰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현장 방문(2013. 11. 21)

“자기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은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

자기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은 말하자면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지 않으면 물을 주고 햇볕도 쬐이고 아무리 그래도 가을에 추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에 나 이거 하고 싶다, 나 이거 잘할 수 있다,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 것인니까, 그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창의적인 노력도 하고, 공부가 짜증 나는 공부가 아니죠. 그래서 마음에 소중한 씨앗을 심는 학기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가 여러 면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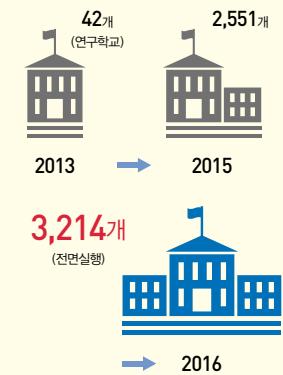
–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2015. 12. 23)

자유학기제는…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교육정책.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는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체험활동 등 학생참여형 수업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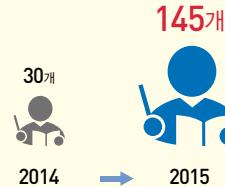
전국 3,214개 중학교 전면 시행

- 시범운영학교 단계적 확대



- 교사연수·컨설팅 시행
(2015년 23회, 5,500명)

- 교사연구회 지원 확대



- 체험활동 지원 확충에 주력
하여 체험처 7만8,993개,
체험 프로그램 16만3,613
개 확보(2015.11)

- 1학생, 1문화·예술, 1체육 활동 참여 등 예술·체육 활동을 활성화
- K-리그 축구강사 지원 :
(2015년 상반기) 11개교 시범 운영 → (2015년 하반기) 180 개교 확대

“모든 아이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꽃들이다”

나무가 있는데 한 120여 가지, 종류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로 다르지만 자기의 독특한 멋을 자랑하면서 잘 자라고, 또 그런 다양한 나무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오늘 어린이날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모든 아이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꽃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도 꿈, 또 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란다가 소질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살려내서 서로 다른 꿈들이 펼쳐지면서 같이 어우러질 때 우리 사회도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 어린이날 꿈나들이(2015. 5. 5)

“간절하게 원하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흔히 꿈과 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독특한 소질 있잖아요. ‘내가 저것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다. 나는 저걸 잘하고 저걸 굉장히 좋아한다’ 하는 끼,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내가 그걸 더 잘해 봐야지 하면서 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아름다운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꿈도 꼭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또 돋겠습니다.

- 어린이날 꿈나들이(2015.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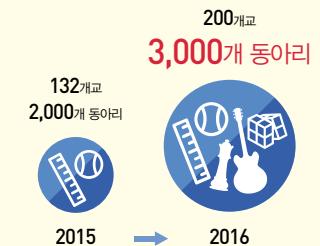
“곡식을 심으면 1년 후에 수확하고,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에 결실을 맺지만, 사람을 가르치면 100년 후가 든든하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는 나침반과 또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 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곡식을 심으면 1년 후에 수확을 하고,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에 결실을 맺지만, 사람을 가르치면 100년 후가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년을 내다보는 백년지계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계 신년 인사회(2014. 1. 8)



- 자유학기제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학생 참여 활동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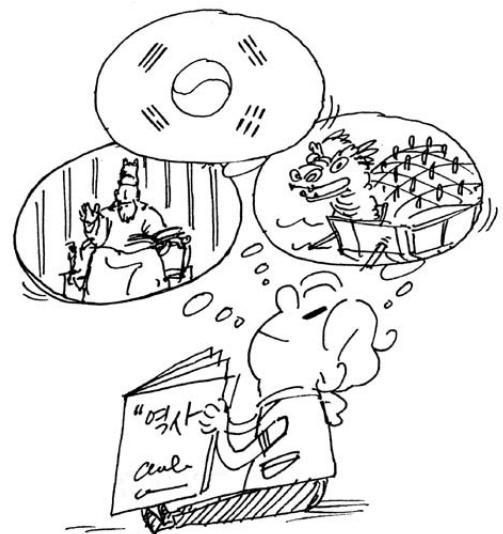
- 진로체험버스 운영(2015년 385교) 및 원격영상 진로멘토링(2015년 1,028교) 확대를 통해 농산어촌의 진로체험 지원

- ‘경제계 진로탐색 네트워크’ 참여 기업(50개)에서 체험형 프로그램(54개)을 운영하는 등 민간 기업, 협회·단체 등과의 업무협약 확대

“영토가 육신이라면 역사는 국민의 혼이다”

고려시대의 역사학자는 이 땅이, 이 영토가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육신이라고 한다면 역사는 그 국민의 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모른다고 하면 혼이 빠진 인간이고 또 역사를 잘못 알고 이상하게 왜곡돼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돌아다니는 것은 영혼이 썩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건 우리 사명이에요.

– 제15차 수석비서관회의(2015. 10. 13)



올바른 역사교육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정복한 나라가 오히려 정복당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

확고한 역사관과 국가관이 자리 잡아야 배운 지식도 살과 피가 되는 것이고, 일을 하나 결정해도 바르게 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the conquered conquer the conqueror’, 이런 말이 있죠. 정복을 한 나라가 오히려 정복을 당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와 같이 역사,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를 문화, 역사 이런 것이 없는 야만인들이 힘으로 지배를 했어도 오래 못 간다는 거죠.

– 제15차 수석비서관회의(2015. 10. 13)

“우유는 냉장고에서 나온다?”

우스갯소리 중에서 이런저런 것을 모르고 배울 기회도 없었던 어린이한테 우유가 어디서 나오냐고 물으니까 냉장고에서 나오라고. 그게 어린이 잘못이겠습니까? 알려 주지 않은 기성세대의 잘못이지.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 제13회 국무회의(2015. 3. 31)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 광복7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2015. 8. 12)

올바른 역사교육은…

현 검정 역사교과서는 우리 역사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여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 이에 학교현장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교과서를 통한 역사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

- 산업화와 민주화, 경제발전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구현과 국민의 자존심, 민족적 긍지 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

- 2017년 3월부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교육

“밥을 지으면서 쌀 한줌은 항아리에 넣어 놓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웃을 도울 때 밥을 지으면서 쌀 한줌은 항아리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밥 한 번 지으면서 한 줌은 항아리에 넣어서 이전 나중에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필요한 사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혼자 잘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맨날 생각하는 정신, 우리 조상들이 이 쪽 갖고 있던 그런 DNA가 면면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 나눔실천자 오찬(2015. 8. 20)



기부문화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천당은 나눠 먹고 지옥은 혼자 먹느라 전부 깊는다”

지옥과 천당에서 밥을 먹는데, 길이가 매우 긴 수저가 다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것 때문에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모두 졸졸 깊고 있는데, 천당에서는 잘 먹으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천당은 전부 즐겁게 서로 먹여 줘서 배불리 먹는데, 지옥은 자기 혼자 먹느라고 전부 깊고 있다는 것이지요.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84차 본위원회(2013. 9. 27)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속담이 있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맨날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떡도 돌리고. 이웃하고 나누는 게 마음속에 잠재돼 있는 것 같아요.

- 나눔실천자 오찬(2015. 8. 20)

“겨자씨 만한 나눔도 큰 나무처럼 자랄 수 있다”

겨자 같은 씨앗은 아주 작지만 땅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면 굉장히 큰 나무로 커 간다고 합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으면 저거 내 일이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내가 정성을 들여서 저분 도와 줘야 되겠다는 마음, 인간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오늘의 우리 사회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나눔실천자 오찬(2015. 8. 20)

기부문화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제1호 기부자로 서명에 나서는 등 나눌수록 행복이 커진다는 생각을 갖고 각종 계기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강조.

국민참여 청년희망펀드 조성

- 범사회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고액기부금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은 높이는 등의 세제 혜택 확대

- 청년희망펀드를 모태로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분야별 멘토링, 일자리정보 원스톱 서비스, 일자리 매칭사업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소·중견 Only-one 기업 채용박람회’를 통해 11명의 첫 취업자를 배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최근 윤 일병 사건 등 군내 폭력사건이 있었고, 또 김해 여고생 피살사건, 여대생 폭행사건 등 반인륜적인 폭력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서 학교와 군대, 직장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상대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과 바른 인성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10차 수석비서관회의(2014. 8. 11)



공동체 가치 확산 관련 그 밖의 비유들

“햇빛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여야만 불꽃을 피울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변화와 혁신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혁신과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쌓을 것입니다. 햇빛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여야만 불꽃을 피울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곳에 모아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과의 오찬(2015. 6. 5)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처음 나무를 심을 때는 ‘이 나무가 언제 자라나’ 했겠지만 그때 만약 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지금의 결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들도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미룬다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길에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로타리 대표단 간담회(2015. 5. 8)

공동체 가치 확산…

인구성장의 정체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공동체의 갈등 심화 및 도심지역의 인구유출로 지역경제의 활력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 정착,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선진의식 과제 및 공동체 가치 회복.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

- 공동체 발전 국민포럼, 지역순회 토론회, 공동체 글로벌 한미당 등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발전 사업으로 지역사회 회의 활력 제고
- ‘고향희망심기’ 운동으로 고향을 위한 개인의 봉사를 촉진하고, 지역재단, 공동체 오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공동체 단위로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 조성

“제때에 꿰매는 한 바늘이 아홉 바늘을 던다”

우리가 국민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시작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제때에 꿰매는 한 바늘이 아홉 바늘을 던다’는 속담이 있죠? 아홉 바늘 꿰매도 제대로 안됩니다,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사고 났을 때 드는 비용은 그것의 수천 배예요. 그리고도 회복이 안 됩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고통받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장관이 취임할 때 이 부분도 전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2차 수석비서관회의(2013. 3. 4)



국민안전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설마가 사람 잡는다”

프랑스가 IS 때문에 아주 큰 참극을 당했는데, 그래도 범인을 잡고 뭔가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건 이런 통신에 관한 것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들도 깜깜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허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지, 설마 하고 있다가 정말 큰일 나요. 희생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나서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 제51회 국무회의(2015. 11. 24)

“여기에서 새는 쪽박 다른 데서도 샌다”

지금 보면 가정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 왕따 이런 대한민국 인데, 그 아이들이 커서 군대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는 특성상 폐쇄적이라서 그런 군대에 젊은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심화되고 있어요.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윤리를 배우고 남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중시를 배워서 군대에 가면 사고를 100% 방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훨씬 좋아질 겁니다. 여기에서 새는 쪽박이 다른 데 가서도 새는 거잖아요.

–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초청 오찬(2014. 8. 19)

국민안전은…

국민이 전국 어느 곳에 살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육상·해상과 자연·사회재난으로 분산돼 있던 국가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국가적 재난안전관리 총괄 조정 기틀 확립.

안전신문고 앱 확산

- 2015년 2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설한 후 83만여명이 설치. 한해 동안 7만 7,998건의 위험요소가 신고되어 6만 489건 개선

- 2015년 2~4월간 중앙·지방·민간 합동으로 107만여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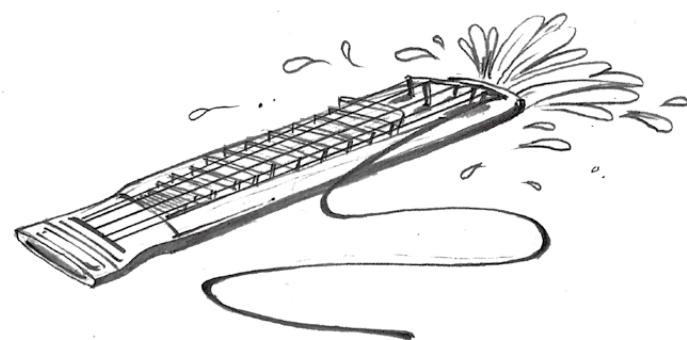
- 2만건 현장조치, 3만7천건 보수·보강, 152건 제도개선 추진

- 15개 유관부서와 재난안전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기존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국가안전관리 중·장기 혁신전략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거문고의 낡은 줄은 새 줄로 바꿔야 소리가 제대로 난다”

경장(更張)이라는 말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서 새 줄로 바꾸어서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인데, 120년 전의 경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성공하는 경장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국가 어젠다를 확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5차 수석비서관회의(2013. 12. 23)



국가혁신 관련 그 밖의 비유들

“법보다 더 깨기 힘든 게 관습”

법보다도 더 깨기 힘든 게 관습이라고 그릅니다. 법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고, 법은 어길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관습이다’ 그러면 깨기가 더 어렵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대가 무적의 군대다, 그러면 계속 무적으로 나간대요. ‘우리 선배들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 전통을 깰 수가 있느냐.’ 그 래갖고 그걸 지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깨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국회에 그런 전통이 세워지면 앞으로 후배들이 들어오더라도 깨기가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환담(2015. 10. 27)

“긍정을 믿으면 Impossible이 I'm possible이 된다”

같은 문제를 놓고 한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는데, 두 사람 다 맞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한 사람은 그것이 가능해지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느님께 기도드려서 ‘다 이루어 주실 거다’고 믿고 열심히 하면 가능한 일이 되고, 안될 거라고 하는 사람은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Impossible’이라는 말의 I를 대문자로 바꾸고 아포스트로피를 찍으면 I'm possible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2015. 3. 12)

국가혁신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국가·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어젠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뿐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 등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구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

-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종점 추진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반부패 시스템 운영
-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공공재정 시스템 간 정보 공유, 내부통제장치 강화 등에 관계기관 역량 결집
-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비정상·부조리 근절 관계기관회의 등을 통해 반부패 시너지 효과 창출
-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고구마 줄기처럼 뿌리는 확 뽑아버려야”

각 부처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하겠지만, 건수만 올려 가지고 여기는 몇 건, 이 부처는 또 몇 건, 이렇게 숫자놀음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부처가 한두 개만이라도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잡으면 그건 1,000개 한 것보다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나쁜 것이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뿌리 뽑고, 아마 그거 뿌리 뽑으면 몇 가지는 고구마 줄기같이 딸려 나와서 같이 뽑힐 거예요. 딸려 들었으면 뿌리를 확 뽑아 버려야 돼요.

– 제20차 수석비서관회의(2013. 9. 30)



부패 척결 관련 그 밖의 비유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으로”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국무조정실은 불독 같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안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 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2014. 2. 5)

“옥동자 나오기 전에는 힘들 수 밖에 없는 것”

아기 낳을 적에도, 옥동자가 나오더라도 그 전에는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응애! 하고 아기가 나오면 모든 게 기쁨으로 바뀌듯이 그 전 순간은 힘들 수 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초청 오찬(2014. 8. 19)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듯이”

우리가 돋보기로 결국은 종이를 태우는데, 그냥 갖다 대면 종이가 타겠습니까? 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건 뿌리를 뽑겠다고 체크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 공무원들도 ‘아, 우리 장관이 엄청 신경을 쓰시는구나’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게 뚫리거든요.

– 신년 조찬(2014. 1. 1)

부패 척결은…

권력형 비리 척결, 성역 없는 부패 척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 을 경주.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관련 권력형 비리가 전무해 정직·청렴함에 있어 역대 정부 와 차별화된 평가를 받고 있음.

부패방지 4대 백신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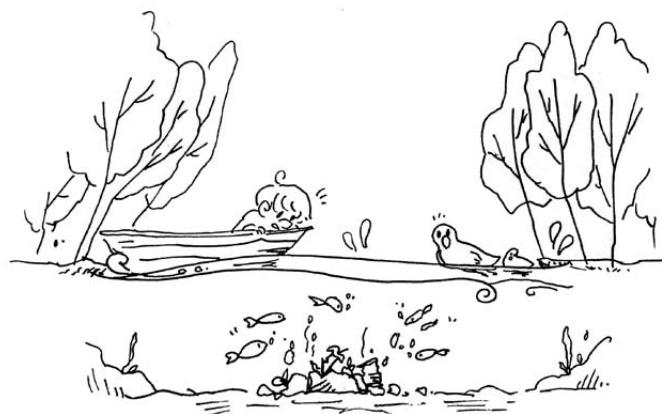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 단을 출범시켜 총 1조원에 달하는 방위사업비리 사건을 전면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각종 납품비리를 낱낱이 조사.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 추진

-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16개 정책분야 240조원 규모의 국고사업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5조원의 예산절감 효과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나는 위기는 묵은 오물을 청소할 기회다”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난다면 위기일 것이라, 그 위기는 강바닥에 쌓여 있는 묵은 오물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국가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근본부터 하나하나 바꿔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묵은 적폐를 바로잡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새누리당 제3차 전당대회(2014. 7. 14)



적폐 해소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적폐라는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

최근 일부 민간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사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쌓여온 적폐인데 이제부터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 제47회 국무회의(2014. 10. 28)

“병을 고치려면 먼저 드러나야 한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 그동안 쌓였던 적폐나 으레 그런 거지 하던 게 다 드러나서 어수선하지만, 병을 고치려면 우선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냥 진통제 먹고 대충 나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짜로 암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수선하지만 그런 적폐들이 자꾸 드러나면 이걸 고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 제12차 수석비서관회의(2014. 10. 6)

적폐 해소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규제와 규정, 비합리적인 관행 등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국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함.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첫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적폐 해소를 강조.

성역 없는 비리 척결

-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중 601억원을 집행하는 등 사회지도층의 고액벌금·추징금의 엄정집행 및 범죄수익 철저환수 등 비리척결과 엄정한 법집행 추진

-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황제노역’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 등 제도개선

“법은 목욕탕이다”

지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했는데 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하니까 나중에 감상을 적는데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린이가.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생각에 법은 목욕탕이다, 따뜻한 물속에 딱 들어앉아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깨끗해진다, 그런 아주 좋은 발상을 했는데, 사실 법은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또 따뜻한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 2016년 정부업무보고(국가혁신)(2016. 1. 26)



법질서 확립 관련 그 밖의 비유들

“범죄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거나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을 철저히 수사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이런 별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구나, 영어에도 ‘Crime doesn’t pay’라는 말이 있잖아요. 범죄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손해를 본다는, 또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게 확립되면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 법무부 · 안전행정부 업무보고(2013. 4. 5)

“일벌백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고 법에 적힌 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것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일벌백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법을 통해서 사람이 법을 어기면 벌을 준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이 엄정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법은 지켜야 되겠구나.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을 지는구나’하는 인식을 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범죄자를 미리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제40회 국무회의(2013. 9. 17)

법질서 확립은…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 정부는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 등을 중점 추진.

절제된 사면권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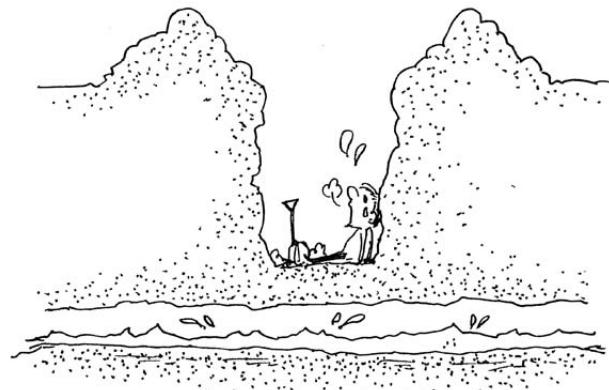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 후 민생사법 및 경제인 중심으로 단 2차례의 특별사면 실시

- 민생사면의 경우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경제인 사면의 경우에도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집행률이 부족한 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 특히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아흔아홉 길 우물을 고생해서 파더라도 나머지 한 길을 파지 못하면 그 우물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옛말에 ‘아흔아홉 길 우물을 고생해서 파더라도 나머지 한 길, 이걸 파지 못해서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 우물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이 고생 저 고생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더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때까지 그게 물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 국민행복 업무보고(2016. 1. 20)



공직 윤리 관련 그 밖의 비유들

“100번이나 쪼아도 꿈쩍 않는 바위도 101번째 내리쳤을 때 돌로 찍 갈라진다”

우리 국민들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렵고 힘든 시절에 다음과 같은 마음의 글을 쓰면서 어려움을 이겨 낸 적이 있습니다. 돌을 깨고 다듬는 사람이 100번이나 바위를 쪼아도 큰 돌덩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작은 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1번째 내리쳤을 때 그 바위는 돌로 찍 갈라집니다. 101번째 망치질이 그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100번의 내리침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 제1차 수석비서관회의(2014. 1. 27)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실천이 뒤따라오지 않을까 두려워서이다”

옛날 선비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말한 게 실천이 뒤따라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말을 함부로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말은 너무 쉽게 하고 실천이 안 따라오는 게 많잖아요. 우리 정부는 하여튼 말할 때 조심하고, 왜냐하면 말을 딱 던져 놓고 나중에 실천 안된다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 제12차 수석비서관회의(2014. 10. 6)

공직 윤리는…

공무원의 전문성은 높이고 공직의 개방성은 넓혀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한편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를 바탕으로 공직가치를 재정립하여 ‘반듯한 공직사회’ 구현.

공직 가치 재정립

- 공무원현장 개정 등 공직가치의 재정립 및 교육 확대를 통해 공직가치 확립

- 경력개방형 직위를 165개에서 218개까지 확대하는 등 우수한 민간전문가 임용 확대

- 저성과 고위공무원 관리 강화, 성과연봉 적용대상 및 성과급 비중 확대를 통한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

“공직을 가진 사람은 맨 나중에 웃는다”

그래도 어쨌든 풀어 내야죠. 그래서 옛날에도 ‘공직을 가진 사람은 맨 나중에 웃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힘들게 노력해서 국민들이 편안하다, 좋다, 웃을 때까지 공직은 안 웃고 있다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웃는다고. 그게 또 기쁨이고 보람이지 다른 것 가지고 힘든 일 하겠습니까? 잘 되는 것 보고 국민들이 좋아하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직이라고 생각됩니다.

– 신년 조찬(2015. 1. 1)



공직기강 관련 그 밖의 비유들

“남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결국 자신의 경쟁력이고 성공의 지름길이다”

최근 출간된 한 외국학자의 책을 보면 ‘남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결국 자신의 경쟁력이 되고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국민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 드리면 그것이 정부의 더 큰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또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2013. 3. 25)

“만시지彈!

늦었다고 탄식하지 말고 총알같은 속도로 하자”

오늘 보고하게 되는 미래부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갈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미뤄지고 또 다른 부처들보다도 출발이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속도감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에 탄식할 ‘탄’자를 탄환 ‘彈’자로 바꿔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총알 같은 속도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2013. 4. 18)

공직기강은…

관행처럼 반복되어 온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직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 청렴성을 높여 공정사회 및 선진일류국가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음.

공직 청렴성 강화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6. 9)에 따라 공직자가 인허가·인사 등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공직 청렴성에 대한 기준을 한 단계 높임

-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 법)을 개정해 퇴직 공직자의 공직유관단체 등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업무 관련성 판단을 확대해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및 공무수행 공정성 제고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다”**

어제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55회 국무회의(영상)(2015. 12. 22)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웅이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웅이다’ 하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길을 이렇게 기꺼이 선택해서 간 여러분들이야말로 인도주의의 영웅, 모두 영웅들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와의 대화(2015. 5. 15)

“마음이 하나가 되면 무쇠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무쇠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평화통일의 길이 멀고 힘들지만 5천만 우리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주평통 운영위원·상임위원 여러분께서 행복한 통일시대를 여는 길에 앞장서 주시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대화(2013. 11. 25)

“정신을 집중해서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

과거 우리는 전쟁의 폐허와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세계가 놀란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못 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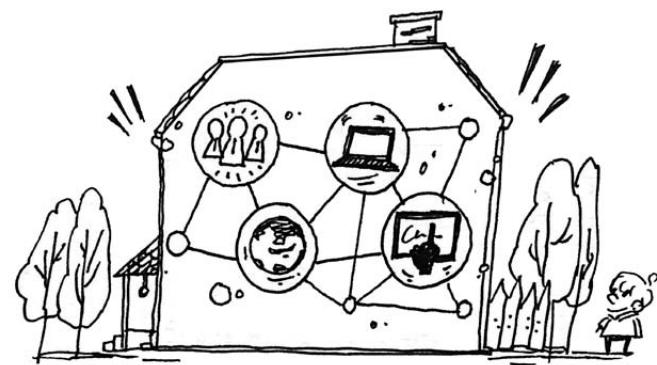
– 신년 인사회(2016. 1. 4)



“건물도 천장만 아름답고 문짝만 아름다워서 좋은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건물도 천장만 아름답고 문짝만 아름다워서 좋은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잘 되어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부처가 협업을 잘 하셔서 2014년도 국민이 행복한 집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면서 살 수 있게 많이 힘써 주시기 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복지분야 업무보고(2014. 2. 11)



정부조직혁신 관련 그 밖의 비유들

“기러기가 V자로 무리지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기러기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날아갈 때 V 자로 무리지어 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앞장서서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호흡을 맞춰서 날갯짓을 하면 공기의 흐름이 상승기류로 바뀌어서 뒤따르는 기러기들의 비행 능력을 70% 이상이나 높여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자체, 경제계 등 국정의 주체들이 손발을 맞추어 앞장서서 노력하고 협력할 때 국민의 삶의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질 수 있고 함께 경제를 살리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신년 인사회(2015. 1. 2)

“눈길을 처음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길이 된다”

세종청사 개청이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낯선 환경과 부족한 여건 속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눈길을 갈아서 처음 걸어가는 사람은 발자국을 내면서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그 발자국이 바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새 길을 여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세종청사 이전 상황점검 및 지원 격려오찬(2013. 12. 27)

정부조직혁신은…

정부조직을 국민과 현장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혁신의 기틀을 마련.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아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

국민행복시대 기틀

-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관리하는 국민안전처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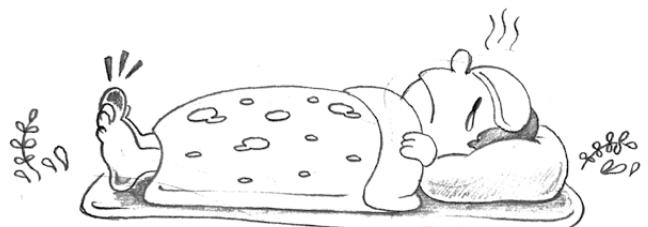
-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미래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 정책 수립 지원

“발가락에 티만 하나 박혀도 몸 전체가 아프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나라가 중심이 서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책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 몸도 손가락 하나가 아프다면 머리는 멀쩡한 게 아니라 계속 아프거든요. 발가락에 티만 하나 박혀도 몸 전체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전체가 다 편안해야 나라도 중심이 잡히고 또 국민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티타임 같은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 경제부처 정책점검회의(2014. 10. 6)



칸막이 허물기 관련 그 밖의 비유들

“간이 나쁜데 위장만 튼튼하다고 안 아픈 것이 아니다”

지금 정부 정책과제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브랜드 과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국민 관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저렇게 해서 나한테 어떤 손해가 있느냐’ 하는 게 제일 관심사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각 부처는 한몸이다, 간이 나쁜데 위장만 튼튼하면 뭐하겠어요. 전체가 다 아픈 거죠. 그러니까 칸막이를 넘어서 정부 전체의 시각에서 과제를 관리하고 또 국민의 관점에서 성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 경제부처 정책점검회의(2014. 10. 6)

“모든 사람의 일은 어느 누구의 일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관 간 협업입니다. 규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일은 어느 누구의 일도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안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보면 책임을 미루기가 좋아서 문제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앞으로 협업의 주관기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주관기관에게 책임과 권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2014. 9. 3)

칸막이 허물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행정서비스 연계 및 통합 추진. 부처 중심이 아닌 과제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성과를 내는 정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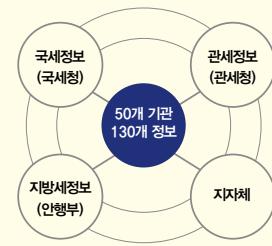
달라진 협업 시스템

통합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 국가적인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

과세자료 통합 관리시스템



▶ 분산된 과세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이중·착오 과세부과 방지

“아기를 낳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 현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돼서 체감되고 있는가, 실제 성과가 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그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하는 일이 사실은 더 힘든 겁니다. 정책을 하나 만들어 내도 이걸 계속해서 뿌리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2013. 3. 28)



서비스 정부 관련 그 밖의 비유들

“국민은 보라색을 바라는데 초록색이나 파랑색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

국민이 행복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도 우리가 왜 협업을 해야 되며 국민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국민은 보라색깔로 바라는데 이쪽 부처에서는 초록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저쪽 부처는 파랑색을 갖고 한다면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정신으로 성과를 내고 국민이 체감하게 달라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자리 문제도 그렇게 해야 하고, 여성·장애인·노년층·베이비부머 세대, 장년층, 다 자기 사정이 다르거든요.

– 제8차 수석비서관회의(2013. 5. 20)

“콜라가 없다면 식혜나 사이다를 고를 수 있게 하라”

한창 더운 날씨에 어떤 음료수 파는 가게에 들어와서 ‘콜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마침 콜라가 떨어졌다고 ‘콜라 없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콜라를 찾는 이유가 갈증 때문인데 ‘콜라는 떨어져서 없지만 여기 식혜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시원한 거 이런저런 것이 있습니다’하고 고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17회 국무회의(2014. 4. 15)

서비스 정부는…

국민 중심·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하고,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는 등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 시스템 도입.

원스톱 민원 해결

- 110통합콜센터(90% 이상 높은 수준의 만족도)로 행정기관 간 핑퐁민원을 소관기관의 신속한 확정으로 처리기간을 이틀 이상 줄임
- ‘민원 24’ 고도화를 통한 통합 생활 민원정보 제공
- 정부가 보유한 원천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등 제공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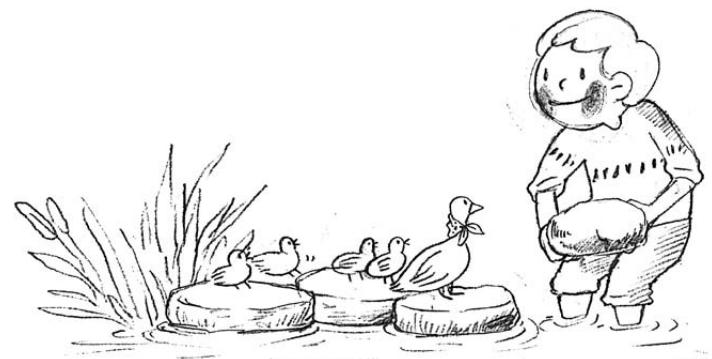
정보공개 대상 건수



“우문현답 =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오늘도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도 그 흐름이 무조건 공급하고 지원하고 이게 아니라 수요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현장에서 깊이 연구하고 듣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어떻게 뜻이 정리가 되느냐 하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현장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고는 절대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15. 10. 22)



현장중심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의사가 아픈 사람 고칠 때도 약 한 번 처방하고 내 할 일 다했다고 안 한다”

정말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아픈 사람 고칠 때도 약 한 번 처방하고 내 할 일 다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느냐, 부작용은 없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서 약과 처방을 다시 바꾼다든지 이것 조심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고쳐서 완전히 낫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사된 기분으로 계속 현장에 가서 어려운 점, 보완할 점은 없는가 물어서 보완하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경제활성화 분야 업무보고(2014. 2. 20)

“벼에서 쌀을 얻기까지 88번의 손길이 간다”

정책을 내놨으면 계속 현장 확인, 또 수요자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계속 쟁기지 않으면 뿌리내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벼도 모를 심어서 나중에 쌀로 수확할 때까지 88번의 손길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데, 벼도 그런데,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이것이 얼마나 손길이 많이 가야 되는가. 그래서 반드시 이 정책 고용률 70%는 모든 걸 걸고 달성시키겠다고 달라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10차 수석비서관회의(2013. 6. 3)

현장중심은…

국민이 개별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정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 주민센터 등 최접점 민원창구 확대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제고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확대

-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확대와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앱, SOS 국민안전 서비스,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 안전영농 지킴이 등)

“십리를 갈 때는 신발 끈을 매고, 백리를 갈 때는 가방을 챙기고, 천리를 갈 때는 같이 갈 친구를 챙긴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오늘날 아시아가 당면한 과제들은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십리를 갈 때는 신발 끈을 매고, 백리를 갈 때는 가방을 챙기고, 천리를 갈 때는 같이 갈 친구를 챙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아의 일원이라는 인식으로 지혜를 모아 나갈 때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 제6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2015. 5. 19)



동북아 평화협력 관련 그 밖의 비유들

“고통의 순간에 더욱 빛나는 것이 우정”

63년 전 발발한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자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순간에 더욱 빛나는 것이 우정’이라는 말처럼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미국이라는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180만명에 달하는 미군들이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무더위와 혹한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쳐 써왔습니다.

– 60주년 한미동맹의 날 경축연(2013. 9. 30)

“중국의 강과 한국의 강이 서해바다에서 하나가 되듯이”

중국의 강이 흘러서 서해바다로 오고 또 한국의 강이 흘러서 서해바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가 되듯이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이 한데 어우러져서 동북아의 꿈으로 더 크게 발전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중국 CCTV-13 방송 인터뷰(2014. 6. 30)

“물을 마시며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라”

옛 말씀에 ‘음수사원(飲水思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생각한다는 의미인데, 저와 대한민국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혼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 6·25전쟁 63주년 국군 및 UN군 참전유공자 위로연(2013. 6. 24)

동북아 평화협력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지속 가능한 협력의 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신뢰외교의 주요정책으로, 역내 국가들 간 다자대화를 촉진하여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고 상호신뢰를 높여 공고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음.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 한·중·일 정상회담이 3년 반의 공백을 넘어 재개(2015.11)되면서 56개 항목에 이르는 ‘공동선언’ 채택과 회담 정례화 합의 도출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중·러 등 5개국 협의 강화

“대한민국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토인비 교수가 그랬다면서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우리가 그만큼 도전이 세면 이겨내야 하니까 머리를 쓰고 노력하고 해서 응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역량이 그 사이에 커지면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너무 좋게 생각하는 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죠. 외국에 나가면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모두가 놀라요. 자기들보다 더 못살고 희망이 없던 나라가, 도대체 어떤 역량을 가졌기에 이렇게 돼서 자신들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를 모델로 삼는 나라가 되냐, 그것도 평탄한 역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 놀랍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뭔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오찬(2014. 12. 2)



국제적 위상 강화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되자”

우리가 세계적인 게 되게 하자고 한 건 아니고 열정을 갖고 잘 살아보자 한 건데, 만들어낸 것이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있고 국민들이 막 열정을 가지고 하는 바람에 세계에 벤치마킹할 정도로 됐습니다. 소설에도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난다.’ 하듯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기조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되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렇게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방자치도 신흥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좋은 것이 없을까? 더 고칠 게 없을까?’ 할 때 그런 거 잘 만들어놓는 게 우리 국민들은 뭔가 끼가 있는 것 같아요.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2013. 10. 23)

“내 코가 석 자는 옛말”

옛날 우리가 못살 때는 ‘내 코가 석자’라고, 우리 살기도 바빴는데 지금 이렇게 발전하니까 개도국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 나라보다 더 못살았는데 발전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한국이 하는 대로 좀 해보자, 그래서 이런 기술, 저런 모델 전부 해 달라고 해요. 우리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 성장했는데 우리는 또 우리대로 다른 나라에 기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면 수출도 하지만 그런 나라 도와주기 바빠요. 한국이 그 정도로 지금 바쁩니다.

– 대구 시민과의 오찬(2015. 9. 7)

국제적 위상 강화는…

박근혜정부는 각종 국제기구 및 회의 등에서의 규범 창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며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함. 교육·보건 등 개발협력 분야의 국제적 기여 확대 및 리더십 강화는 글로벌 무대에서 괄목하게 신장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외교력 향상의 결과.

국제사회 기여 확대

-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함께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국제 해운 및 조선분야 사업시행을 관掌하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등 국제기구 수장을 2명 배출
- 평화 및 안보, 개발 및 기후변화, 인권 및 문화 등 UN 3대 분야 10개 국제기구 및 회의에서 의장직 수임
- 국제사회 중견국으로서 개발의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
 - 개도국 및 저개발국 소녀의 보건과 교육을 중시하는 ‘소녀를 위한 보다 나은 삶’ 구상 발표
 - 보건취약 국가 및 지역에서의 보건 역량을 강조하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 발표
 - 새마을운동도 ‘21세기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변환시켜 개도국의 농촌 개발 노력 지원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얼마나 전쟁 위험이 크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옛날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이런 말을 했죠. 얼마나 우리 태세가 확고하고 흔들림 없고 사회가 안정되고 이런 걸 보고, 전쟁이 날 수도 있지만 그걸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 대비하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쟁이 나면 물론 수단방법 안 가지고 이겨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최고의 전략은 손자병법에도 있듯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다는 것이죠.

– 언론사 정치부장단 만찬(2013. 5. 15)



튼튼한 안보 관련 그 밖의 비유들

“거미줄에는 사각지대가 없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몇 개 치고, 이쪽에 몇 개 치고 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벌레가 딱 붙으면 어느 것 하나 전달 안되는 게 없다는 거죠. 네트워킹에 사각지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벌레 하나가 걸렸다 하면 즉각 거미가 앉아 있는 중앙에 신호가 오는 거예요. 줄 몇 개 쳐 놓고.

– 제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2014. 2. 7)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말처럼 어떤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시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쟁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전시전환 절차와 전시 임무수행 체계를 정립하고 전시에 적용할 계획과 소산시설 등을 종합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2013. 8. 19)

튼튼한 안보는…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국지도발 및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응태세 확립.

창조적 국방 기반 강화

-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응능력인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미래 전력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구난로봇 개발 등 무인로봇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ADD 역량 강화를 통해 신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창조적 국방 R&D 기반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3,000톤급 잠수함과 신형 이지스함 사업은 2014년 9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확정하여 국내 연구개발을 추진.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 및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평화는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마침 오늘 새벽이죠? UN안보리에서 아주 고강도의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정말 국제사회가 단일 대오를 구축해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저지하는 첫 단초가 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거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평화는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억지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2013년 장교 합동임관식(2013. 3. 8)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최상의 승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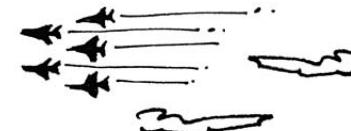
옛날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최상의 승리다’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무기를 개발해 냄으로써 적이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빌버둥 쳐 봤자 돈만 들어가지 대한민국에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포기 할 수밖에 없고, 감히 남한을 넘볼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의 손자병법은 첨단과학기술이 뒷받침되고 또 여러분의 사명감이 그것을 뒷받침해서 이루어지는 병법이 되겠습니다.

– ADD 안흥시험장 방문(2015. 6. 3)

“브레이크를 믿을 수 있어야 자동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여러분, 브레이크를 믿을 수 있어야 자동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듯이 국방이라는 든든한 베풀목이 있을 때 국가발전도 가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일과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일 모두 반드시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 유지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 경축연(2013. 10. 1)



- 공중급유기 사업은 1993년 최초 소요결정 이후 20년 이상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었으나 2013년 8월 도입을 결정. 2015년 6월 유럽 에어버스 사 A330 MRTT를 공군이 도입할 기종으로 결정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미국하고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이 비핵화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확고한 공조 속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도 자기 뜻을 해야 되겠죠. 영어에도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고 혼자서 출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평화적으로 하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 워싱턴포스트 인터뷰(2015. 6. 11)



남북관계 재정립 관련 그 밖의 비유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차이는 좀 있지만 러시아, 중국까지 핵은 안된다, EU, ASEAN 국가들 다 공조가 됐는데 북한은 핵 포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여기에서 벽에 부딪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국제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핵은 안된다,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밝은 미래를 약속하겠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런 부분은 보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집념을 버리지 않고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혀 있는 거거든요.

-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2015. 11. 5)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국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과 같이 계속 도발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할 때는 이런 노력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이런 방법이 결국은 미래가 없는 길이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 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2014. 5. 28)

남북관계 재정립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이 신뢰 형성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대북정책의 원칙 고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 형성 노력과 함께 북한의 도발과 합의 파기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

-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일방출수에 단호히 대응하여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이끌어 내는 결론 도출

- 2015년 8월 북한의 DMZ 지뢰도발로 야기된 긴장상황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북한의 명시적인 유감 표명 및 실효적 재발방지’ 수단이 반영된 ‘8·25 합의’로 해소

- 2016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 전면 중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오늘 토론에서는 격언이나 좋은 명구가 등장해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인문학적 분위기를 여러분이 만드셨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아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변화하려면 북한의 변화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를 안할 거야, 이렇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2013. 3. 27)



통일준비 관련 그 밖의 비유들

“봄, 여름 동안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거름을 줘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견을 수 있다”

저는 통일준비를 농사를 지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봄, 여름 동안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거름을 줘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견을 수 있듯이, 통일도 평소에 꾸준하게 준비해야만 변화의 시기에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지난 1년 동안의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을 점검하면서 제시된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분명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2015. 11. 5)

“통일은 대박이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외교·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2014. 1. 6)

통일준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 이질성을 줄이고 동질성은 높이기 위해 민생·환경·문화 등 ‘3대 통로’를 중심으로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젊은 세대의 통일 공감대 제고를 위해 체험·감상형 통일교육을 강화하면서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 척수.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문화·종교·체육·인도지원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한 남북 간 교류가 진행되었고, 2000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에서 북한 측이 최초로 사망일자를 확인하는 등 전면적인 생사 확인 실시

- 탈북민 기초생계급여는 수급률은 감소하고 고용률은 증가

- 2015년 청소년들의 통일인식이 전년보다 9.6%p 상승한 63.1% 기록

“물 반 고기 반, 정책 반 홍보 반”

우리가 흔히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 말을 인용해서 ‘정책 반 홍보 반’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데 정성을 들이지만, 이 정책을 어떻게 모든 국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홍보하느냐, 여기에 정책 만드는 것에 이만큼 노력을 들였다면 그만 한 노력을 홍보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정책은 더욱 그렇습니다.

–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2015. 11. 11)



정책홍보 관련 그 밖의 비유들

“국민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리해서 알리세요. 국민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달밤에 자기 혼자 춤추는 거예요. 링크가 필요한 것 이번에 잘 정리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국민이 모르고 나는 했다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알리는 노력을, 예를 들면 정부3.0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느냐 연구하면서 이것부터 시작해 계속 다른 분야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됐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에 실패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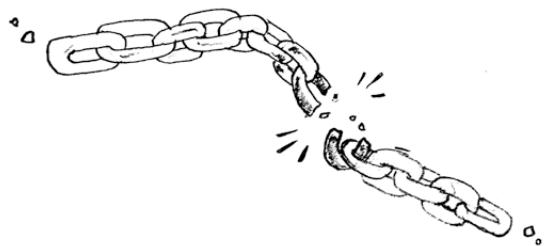
– 제12차 수석비서관회의(2015. 8. 24)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그러니까 ‘그 떡이 맛있대’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그림을 보여 주고 “이 안에 팥도 들었고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다” 하고 딱 보여주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요?

– 제11차 수석비서관회의(2015. 8. 10)

약한 고리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슬은 가장 약한 부분 만큼 강하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어느 한 고리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슬은 가장 약한 부분 만큼 강하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는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아무리 잘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도 미진한 부분에서 꼭 걸려서 국민에게 전달이 안되고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고 체감이 안되는 게 있거든요.

- 일자리·복지분야 업무보고(2014. 2. 11)

오래전부터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된다, 또 3만 달러 넘어서 4만 달러 시대로 가자, 이랬지만 문턱에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헤맨다기보다 들어갈 듯하면서 안되고 안되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우리가 일등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리 전체가 아무리 튼튼해도 한 고리가 약하면 거기에서 끊어지거든요.** 이 고리가 얼마나 튼튼하냐 하는 것은 가장 약한 부분으로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국가혁신 업무보고(2016. 1. 26)

고리를 아무리 튼튼하게 잘 만들어도 꼭 한 군데가 아주 약하게 되어 있다면 다른 데를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약한 그 부분에서 고리는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들이 여러 가지를 도입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디 한 군데가 약하면 거기서 딱 막혀 가지고 잘 작동이 안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쳐서 돌아가게,, 이렇게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국민행복 업무보고(2016. 1. 20)

고리가 튼튼하게 만들어져도 한 부분에서 약하면 다른 걸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거기에서 끊어지잖아요. 외국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이번에 카이스트도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것은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관리, 부처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야만 성공하는데, 어디에 약한 고리 부분이 있어서 좋은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가 안되거나 역량 발휘가 충분히 안되게 하는 혀첨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하고 머리를 싸매고 이 약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완할 건가, 그러면 다른 것도 잘 돌아가지 않겠어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회의(2013. 9. 16)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 고리라도 가장 약한 부분에서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리 전체가 쓸모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와 여성 분야에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갖고 있는데, 아직 국민이 체감을 못했다면 뭔가 거기에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부의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는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을 어떻게든지 뒷받침해서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리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순환이 잘 되어 여성의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자기의 역량을 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3회 국무회의(2014. 1. 7)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요

정책을 만드는 대통령의 비유